

석유제품, 2013년 수출 5%대 증가

무역협회, 5.6% 늘어 비교적 선전 ... 석유화학은 1.9%로 유럽 영향 커

유럽의 재정위기 및 미국의 재정절벽 등 대외적 악재 속에서도 2013년도 국내수출이 4%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수출액은 총 5750억달러로 2012년 5496억달러(추정치)보다 4.6% 증가하고 수입은 5450억달러로 2012년 5201억달러에 비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에 비해 수출과 수입이 1% 안팎의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세계 경제성장률이 3.5% 내외를 기록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무역협회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불안요인은 지속하겠지만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교역 증가에 힘입어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입액이 소폭 감소하겠으나 수출이 회복되면서 다른 원자재·자본재 수입은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선박은 2012년 수출이 28% 감소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었으나 2013년에는 대규모 해양 프로젝트 신규 입찰·교부가가치 선박 인도 등에 따라 수출이 4.9% 소폭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무선통신기기도 2012년 수출이 20% 가까이 감소했으나 세계적인 스마트폰 교체 수요 등으로 2013년 13%대의 수출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일반기계 8.7%, 반도체 5.9%, 석유제품 5.6% 증가로 어려운 여건 속에 비교적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3.2%)·철강제품(2.4%)·석유화학(1.9%)은 주력 시장인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2012년 국내 무역동향과 관련해 경쟁국에 비해 탄탄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며 수출 세계 7위, 무역규모 세계 8위에 올랐지만 하반기 환율·수출단가 하락 등 부정적인 요인도 돌출해 명(明)과 암(暗)이 공존하는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등 글로벌 이슈의 해결이 지연되면 국내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03>